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9월 17일(주일) 제1164호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후원약정서 제출, CGNTV 홈페이지, 모바일앱 참여

오늘(17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실시된다.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CGNTV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CGN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앱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신규후원 또는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CGNTV 전 직원은 국내 10개 캠퍼스에 CGNTV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서빙고 1, 2부, 양재 3, 4부 예배 특순을 한다.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는 후원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현재 후원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후원자 한 사람이 가족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동참하면 5만 명은 꿈으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다. 특히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에 동참하면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다.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 CGNTV가 땅 끝까지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원자들이 필요하다.

이용경 장로(CGNTV 대표)는 “CGNTV가 다음 세대와 네크리스천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최신 기술, 장비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CGNTV가 영화, 드라마를 포함해 더 많은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GNTV는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87개국에 위성안테나 10,978개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연간 6,000여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CGNTV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CGNTV Korea’와 ‘KNOCK’ 페이지는 총 구독자 14만 명, 총 조회 수 4천 1백만 회를 돌파했다. 이외에도 ‘미디어 아카데미’, ‘고향교회 섬김’ 등을 통해서 CGNTV가 가진 재능과 노하우를 한국 교회와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문의: 02-796-2243

홈페이지 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참가신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개인 신청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신청하거나 공동체 전체가 신청하기도 한다. 현재(9월 15일 기준)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하겠다고 신청한 경우가 1,198건, 문자메시지가 268건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에 예배에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기도”라며 “역사를 움직

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40일이 되길 바란다”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송일섭 장로(한강공동체)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는 10월 21일까지 이어진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도운동이다. 참여방법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클릭하거나, 문자메시지(1666-2549)로 이름, 공동체명, 이메일 주소, 금식 일정을 보내면 된다.

매주 기도제목이 제시된 책자도 발행된다. 기도책자를 참고해서 하루 세 번 이상(일어나자마자, 커피 시간, 식사 시간, 잠자기 전, 매일 저녁 10시) 기도하면 된다. 기도책자에는 요일별로 찬양, 말씀, 기도제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고린도전서, 에스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평택M센터 개관

몽골, 베트남, 러시아어예배 집중

평택M센터가 개관했다. 평택역 뒤편에 위치해 있다. 평택M센터는 몽골, 베트남,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지금은 몽골인 3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러시아인 한 가정의 예배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평택M센터는 몽골어예배, 대학 캠퍼스 전도사역 등을 담당했던 이광수, 다기 선교사 부부가 섬길 예정이다.

이광수 선교사(평택M센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택M센터가 개관했다”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010-6343-7588

주소: 평택시 원평로 31 2층

온누리M센터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조건: 문서사역에 헌신한 분,

관련 분야 경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제출: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특집 9월 17일 CGNTV 정기후원의 날 1.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 2.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나부터, 가족에게, 이웃에게

CGNTV 후원자는 약 2만 8천 명이다.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에게는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소중한지 모른다. 후원자들에게는 CGNTV가 그런 존재다. 후원자들은 CGNTV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언제 어디서나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CGNTV만 있으면 아무리 험난한 곳에서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이 좋은 CGNTV 후원을 혼자만 할 수 없다며 후원자들 스스로 가족과 이웃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후원자 103명을 모인 강상훈 집사.



▲ 10년째 온가족이 CGNTV를 후원하는 오범규 집사 가족.

CGNTV가 순수복음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365일 24시간 동안 단 1초도 빠짐없이 복음만 전하려고 광고도 없이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사실 방송사가 광고 없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어려운 일을 CGNTV는 12년 동안 해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CGNTV 후원자들은 재벌이 아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동전을 후원하는 어린이, 커피 한 잔 마실 돈을 줄여가며 후원하는 청년, 외식 한 번 줄이고 후원하는 가족, 자녀가 준 용돈을 떼어 후원하는 어르신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 성별, 직업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CGNTV 애청자라는 것이다.

최영자 성도는 CGNTV를 시청하면서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제주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시력이 나

빠 빛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새벽예배와 수요저녁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에게 영의 양식을 준 이가 바로 CGNTV다. 버튼만 누르면 그녀가 가지 못하는 새벽예배부터 수요예배까지 시청할 수 있었다.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른다. 선교지에서 제공받는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고갈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의 처지가 절로 이해가 됐다. 최영자 성도는 연금의 일부를 떼어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이웃과 가족들에게 CGNTV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

후원자 5만 명 달성을 위하여

또 다른 후원자 강상훈 집사도 이웃들에게 CGNTV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혼자 후원자 103명을 모집했을 정도로 열심이다. 그는 CGNTV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이웃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상훈 집사가 CGNTV와 사랑에 빠진 계기가 있다. 그가 인생의 고비를 넘고 있을 때 CGNTV가 큰 힘을 줬다.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닐 때 CGNTV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CGNTV 후원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강상훈 집사가 이웃들에게 CGNTV를 소개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사무실에 CGNTV 후원약정서를 비치해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뿐이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후원할 여력이 없어 보여도 만나면 CGNTV를 소개한다.

“제 책상 위에 후원약정서를 뒀다가 ‘CGNTV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만 원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보시죠’라고 하면 대부분이 참여하세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 넘게 CGNTV 후원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CGNTV를 소개하면 후원자 5만 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직 CGNTV를 후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시작하고, 그 성도님이 이웃 한 명만 후원에 동참시키면 CGNTV 후원자가 5만 명을 넘습니다.”

오범규 집사 가족은 10년째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오 집사의 권유로 아내 정선미 권사, 아들 오정환 형제, 딸 오지현 자매가 CGNTV 후원자가 됐다. 그들에게 CGNTV는 온가족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다.

“온 가족이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CGNTV를 후원하면서 선교를 알고 직접 도울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오늘(17일)은 CGNTV 정기후원을 하는 날이다. 나부터 후원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CGNTV를 소개하자. CGNTV 후원 페이지(<http://give.cgntv.net>)를 통해서도 후원약정을 할 수 있다. 후원약정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RS 후원(한 통에 5,000원)도 가능하다.

문의: CGNTV 02-796-2243

ARS 후원 060-700-1660

사역칼럼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상업광고 없이 순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CGNTV와 함께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국 이래 12년간 한 순간도 방송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들을 적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정성이 모여 ‘함께’ 하는 방송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올해 CGNTV는 ‘후원자 5만 명’이 이뤄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존 후원자들이 한 명씩만 더

후원에 동참할 수 있게 돕는다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좀 더 동참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치가 아닙니다.

후원자 5만 명이 세워지면 첫째, 순수 제작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 5,716편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하루 24시간, 365일 송출해야 하는 방송 여건상 본방률은 45%대에 불과했습니다. 후원자가 늘어나면 자체 제작 프로그램 수를 늘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높은 수준의 본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작년 CGNTV에서 제작된 5,716편의 프로그램 중 말씀, 예배, 세미나 등 영상 콘텐츠 비

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약했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 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제작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해외 유수의 프로그램 허입은 물론 국내외 환경에 맞는 다음 세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 제작은 동성애 등 혼탁한 시대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송 플랫폼 개발 및 신기술과 장비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송 장비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는 필수적입니다. 기독교방송사도 시대의 트렌드 변화를 뛰어넘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설비를 갖추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방송사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한 미쳐야 합니다.

미디어선교 5만 명 후원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존 후원자들이, 더 나아가 여러분 주위 모두가 동참하도록 앞장서주시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인 CGNTV의 전 직원들은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어가는 이때, CGNTV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송”으로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잊혀 가고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고, 종교적인 거북함으로 해석된다면 잘못된 해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벗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의롭게 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새 생명을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거룩함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삶과 인격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라일 목사님은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은 소금이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맛이 느껴질 것이다. 거룩은 값비싼 향유이다. 만약 거룩이 있다면 그 향기를 피해 숨을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표지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들춰볼 수 없지만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과 거룩함, 칭의와 성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룩이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13~16절).

거룩한 삶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임함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취주시는 빛이 비춤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영적 창조가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동시에 시작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머무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차 받을 은혜를 바라본다. 은혜를 기다린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받을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때까지 날마다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의 구원에 대한 인식과 치열한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거듭난 새 생명일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된 자, 칭의가 임한 자는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화가 없다면 칭의도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미약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삶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많은 고통과 시

거룩한 나그네

베드로전서 1:13~25

“우리의 소명은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련 속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장차 온전히 임할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연단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합당한 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출발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나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나쁜 것을 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룩의 출발은 헛된 욕망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 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어린왕자가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이웃 별 자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별에서 술꾼을 만납니다. 어린왕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그 사람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라고 했습니다. 어린왕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 어린왕자가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부끄러운 일이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13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은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의 구원이자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마지막 때에 받을 구원과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마지막 때에 임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식 표현대로 직역하면 ‘순종의 자녀’입니다.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가깝습니다.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로 ‘빛의 자녀’ 혹은 ‘순종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의 자녀라고 표현하면 순종을 사랑하고, 순종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가끔 옛사람의 욕망에 따라 살던 성향 때문에 갈등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정말 깊은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난 자녀들은 순종을 소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며, 순종을 기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 기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기쁨을 맛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만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들이 느끼는 두려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고전 1:30).

예수님은 거룩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의 소유와 나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청지기로 ... 나누고, 보살피고, 희생해야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할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물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의 재정관은 분명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모으고, 써야 할까. ‘소유와 나눔’을 주제로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본 청소년 연구소’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성공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국 학생 50.4%가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답한 반면 미국 학생 22.1%, 중국 학생 27%, 일본 학생 33%에 그쳤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성공=돈’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정말 돈이 성공의 필수요소일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행복지수와 경제지수 비례하지 않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부탄’은 면적이 우리나라 5분의 1이고, 인구는 약 75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국민총생산(GDP)이 세계 164위, 1인당 국민소득 2,510달러(세계 155위)로 한국의 경제지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난한 나라다. 한국은 국민총생산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7,600달러(세계 45위)로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부탄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난한 나라 부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유엔에서 지난해 실시한 ‘세계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8위로, 84위를 기록한 부탄보다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나라로 조사됐다.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한국이 부탄보다 앞선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등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각종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탄은 주민 10명 중 9명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가 세계최고 수준이다.

영국의 자선단체 자선지원재단(CAF)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금전 기부, 낯선 사람 돕기, 봉사활동 등 3가지 기부 행동을 평가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2016년)에 따르면 부탄이 18위, 한국은 75위(전년대비 11단계 하락)였다. 개개인의 행복지수와 경제지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쉽게 말해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야 행복할까?

그렇다면 가난해야 행복할까? 칼빈은 가난이 부만함이나 영성에 위험한 요소라고 했다. “부유함, 권세, 명예는 종종 사람들의 시각적 예민함을 무디게 하며,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아 그와 같은 달콤함을 마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 불명예, 멸시, 고통 같은 것들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휘방하여 낙담케 하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소유)은 행복과 관계가 없다.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나눔)에 따라 삶의 행복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삭개오

성경에는 돈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이 700구절이 넘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돈에 관한 것이 3분의 2가 넘는다. 그만큼 성경은 물질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잠 10:22)는 말씀처럼 성경 특히 구약에

서는 돈과 부(富)를 축복으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였고(창 13:2), 욥도 거부(巨富)였으며, 솔로몬은 당대 왕들 가운데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부와 영예를 받았다(왕상 3:13).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돈에 대한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예수님이 돈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돈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눅 16:19). 반면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을 정도로 허름하고 가난했다(눅 16:20-21). 그런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뜨거운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는 신세가 됐다(눅 16:22). 부자는 재물을 일신의 쾌락에 사용하고(부의 독식),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등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같은 부자였지만 구원을 얻은 부자도 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다. 삭개오는 당대의 부자였다. 삭개오는 세리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 대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고 선언하셨다.

삭개오가 거지 나사로의 부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유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청지기로 살겠다는 선포였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

돈과 부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힘든 부자의 천국 입성을 두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에 대한 뜻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부자청년에게 경계하신 것은 부자청년이 쌓았던 재물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었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바울은 이를 한발 더 나아가 강하게 경고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렀도다”(딤후 6:10)며 탐욕으로 인해 구원으로부터 멀어짐을 경계했다.

어느 누가 돈을 싫어할까. 오죽하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부는 상대적이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스리고, 잘 써야 한다.

그렇다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 재정전문가 정진호 장로는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다면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데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나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누군가와 나눔 만큼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눔은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나눔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예수님이 거저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칼럼

정진호 장로
(OCC공동체)

성경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 구약의 인물들 중에는 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시편에서는 재물을 즐거워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듯이 재물을 제대로 누리라고 말씀하기도 한다(시편 119:14).

이와 대조적으로 물질을 경계하는 말씀도 많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겔 28: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많은 학자들이 돈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중립적으로 해석했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돈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저서 <돈의 철학>에서 “돈은 단순한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과 영혼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는 돈은 힘이다”라고 했다. 즉 “돈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형장으로 가기 직전의 사형수를 실험대상으로 돈과 관련한 뇌의 반응을 조사했다. “10억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 사형수들의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돈이란 죽음의 공포까지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돈은 살아 있고, 죽음의 공포도 잊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돈을 ‘맘몬’(Mammon)이라고 표현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맘몬의 원뜻은 ‘I believe in’ 혹은 ‘I worship’의 의미이다. 돈은 처음에는 편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경배하게 만드는 맘몬의 본성에는 사악성과 전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주시고 계신다. 돈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돈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성경은 돈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돈은 선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good)”(창 1:31). ‘Good’에는 선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광물, 금, 금강석 등 오늘날 재화의 소재가 되는 모든 기본 물질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물질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

둘째, 인간의 죄로 인해 물질의 선한 용도가 변경되었다. 아담과 하와 원죄로 인해 인간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8-19).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선한 수단이었던 물질의 용도가 변질되어 인간의 탐욕을 유발하고, 죄의 동기를 제공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 있다 해도 ‘리먼 사태’나 ‘메도프 펀드 사

막몬은 보이지 않는 마력이 있고 사악성과 전능성의 발톱을 감추고 있다. 작은 불씨에도 폭발하는 위험 물질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 통치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과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소명자이기 때문이다.

나누어 주는 자의 축복

현대 사회에는 황금만능주의(맘모니즘)가

25:23).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일상생활에서 선포하고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나누어 주는 자의 축복’이 그 해답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7-19).

맘몬이 자기 것이라고 속일 때 우리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릴 수 있다. 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때 맘몬을 이기고 참된 생명의 터를 쌓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질관의 차이이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장기 출장을 다녀와서 세 명의 종에게 맡긴 자산(달란트)을 결산하는 장면이 나온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두 배 증식시킨 종에게 주인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 25:21)라고 말한다. 국제상품전문가들이 지난 2천 년 간의 물가상승과 국제 금 시세를 감안해 계산한 결과 당시 1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10억 원 가치라고 한다. 10달란트는 100억이란 뜻이다. 현대인에게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현대인들은 생존의 불확실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물질이라는 우상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 1달란트를 잃을까 고심해서 땅에 묻는 종과 같은 모습이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마 25:24)으로 곡해했고, 돈을 잃으면 처벌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런 종에게 주인은 노하여 1달란트마저 몰수해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했다.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가? 돈에 묶이고, 두려워하며, 주인이 무서워 떠는 비굴한 종인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유의 아들인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정립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과정도 중히 여기신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두 배의 수익을 가져온 종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고 했다. 주인은 일의 결과뿐 아니라 태도와 과정이 충실했는지도 평가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척도는 동기와 태도,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귀하게 평가하신다.

세상의 재정관과 하나님의 재정관은 다르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고, 모든 소유권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한다.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결과와 함께 동기와 과정이 성경의 진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종 혹은 청지기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를 매순간 자문하고 결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세상의 재정관과 하나님의 재정관은 다르다. 소유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동기, 과정, 결과에 성경의 진리가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실생활에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해야 한다



기사건’ 등 금융위기와 금융사기 문제는 발생한다. 인간의 근본 죄성인 물질에 대한 탐욕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개발되어도 선을 이루기 어렵다.

셋째, 변용된 돈이 선한 수단으로 쓰이도록 맘몬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왜곡된 모든 물질관을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야 할 소명이 있다.

만연하다. 이런 사회에서 크리스천이 맘모니즘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재정원칙과 맘모니즘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소유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냐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나의 돈, 나의 소유에 집착하기 쉽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아시고 성경 곳곳에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계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학개 2:8),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레

탐방 꼭 한 번 가봐야 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남궁억 장로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라

굳이 좁은 길로만 ... 나라 위해 온 몸 바친 신앙인

한국에도 꼭 한번 가봐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가족, 공동체, 순 단위로 방문하면 좋을 명소를 소개한다.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강원도 홍천의 '한서 남궁억 기념관'이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언론인, 교육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온 몸을 바친 신앙의 선배 한서 남궁억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서 남궁억 기념관 앞의 남궁억 장로 동상.



복원된 보리울교회 전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놀이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면서 움직이는 친구들을 잡아내는 놀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만큼 친숙한 놀이인데 그 놀이에 담긴 뜻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한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 꽃이 산천에 피었는데 왜놈들이 어디를 쳐들어오느냐”가 바로 이 놀이에 담긴 메시지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는 경각심과 의식을 고취하는 놀이이자, 일제에게는 “우리 민족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선포였다. 이 놀이를 만든 사람이 바로 ‘한서 남궁억 장로’다. 일제 강점기 무궁화 보급운동, 황성신문 초대 사장, 독립협회 총재를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신앙도 으뜸이었다.

남궁억 장로의 나라사랑

무궁화는 우리나라 삼천리금수강산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강원도 홍천군에는 무궁화가 유난히 많다. 무궁화 수천 그루가 피어있는 무궁화동산, 무궁화 테마파크, 무궁화 마을 등이 있다. 예로부터 무궁화는 한민족을 상징했다. 무궁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만개하는 꽃은 우리 민족을 상징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뿌리 뽑고 없애도 무궁화는 전국의 산과 들, 학교와 교회에서 꽃을 활짝 피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한서 남궁억 장로가 전국 각지에 무궁화 묘목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남궁 장로가 세운 모곡학교, 보리울예배당 자리에는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가 활짝 피어 있다. 활짝 피어있는 무궁화 뒤편에 한서교회, 보리울예배당, 한서 남궁억 기념관이 있다.

보리울예배당과 모곡학교는 1918년 강원도 홍천에 내려온 남궁억 장로가 그 이듬해 지었다. 남궁 장로는 독립협회에도 몸담고 있었는데 두 가지 운동을 펼쳤다. 하나는 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식인들이 서울에만 머물면서 먹고 살 궁리를 하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와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민족을 일깨우자는 일종의 ‘사립학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예배당과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하면서 잠자고 있던 민족들을 일깨웠다. 남궁 장로도 강원도 홍천에 학교와 예배당을 세웠다.

1912년 신민회 사건 이후 독립 운동가들은 해외 망명과 무장독립운동을 했다. 남궁 장로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으로 농촌교육을 택했다. 이 농촌교육이 빛을 발한 것이 1919년 3.1 만세운동이다. 전국의 야학교와 예배당에서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장으로 나섰다.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남궁 장로가 몸이 쇠약해져 농촌으로 낙향했다고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도 열심히였다. 남궁 장로는 세례와 분처전도사(현 장로) 직분을 받고 종교교회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파송을 받았다. 당시 심정이 ‘기러기’라는 자작곡에 잘 드러나 있다.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자 날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네 길 인도 하신다. 너 낙심 말고 목격지 가라.”

남궁 장로는 강원도 홍천을 독립운동 거점으로 삼았다. 보리울예배당과 모곡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사략》, 《조선이야기》를 편찬해서 역사를 가르쳤다. 무궁화를 키워 배포하는 일도 했다. 남궁 장로는 100여 곡의 무궁화 찬송가, 동요, 노래를 지어 전파하기도 했다. 그가 지은 노래들은 ‘보리울노래’라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남궁 장로의 노래에는 힘이 있었다.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도 그가 지은 것이다. 애국가 후렴의 첫 소절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도 애국가 작사가였던 윤치호와 가깝게 지낸 남궁 장로가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궁 장로의 무궁화 사랑은 정말 대단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매년 적게는 수만 주부터 많게는 수십만 주까지 무궁화를 키웠다. 일제가 무궁화를 키우지 못하게 하면 무궁화와 비슷한 뽕나무 묘목을 키우며 그 사이사이에 무궁화를 심었다. 그렇게 전국의 학교와 교회, 사회단체에 무궁화를 팔거나 기증했다.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끝까지 나라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궁화를 정말 사랑했던 남궁 장로는 이른

바 1933년 ‘무궁화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 당하고 옥살이 후유증으로 소천하고 만다. 한 일제 경찰이 장사꾼인 척 하고 남궁 장로에게 무궁화를 산다며 접근했다. 그때 남궁 장로가 “사쿠라(벚꽃)는 피었다 열흘이면 지지만 무궁화는 면연(綿延)이 백일 동안 피어있는 것처럼 한국 역사도 면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보리울교회가 폐쇄되었고, 무궁화 7만 주가 불탔다. 성도들도 옥살이를 했다. 무궁화를 재배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궁 장로를 처벌하기 곤란했던 일제가 주변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기독교 사회주의 모임인 ‘십자가당’이 발각됐다. 보리울교회의 목회자였던 러시아 유학과 출신 목사가 청년들과 십자가당을 만들었는데 일제 경찰이 남궁 장로를 십자가당과 엮어서 고발했다. 이 사건이 남궁 장로를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사실 남궁 장로는 사회주의 단체였던 십자가당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다. 굳이 공통점을 꼽자면 예수를 믿는 것뿐이었다.

당시 심문기록을 보면 일제 경찰이 남궁 장로의 신앙에 대해 묻는 대목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남궁 장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배재골(배재학당 근처)에서 자랐다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소”

일제의 강압 앞에서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머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당시는 대쪽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변절하고, 믿음 좋았던 목사들도 신사참배를 하던 시절이었다. 남궁 장로는 “아니요, 잘 모릅니다”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옥고를 치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라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나이 칠십이고 다 산 몸이 전환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옷을 일이나 어서 법대로 할 것을 바라는 것 뿐이요 나는 죽더라도 조선 사람으로 죽겠소”

한서 남궁억 기념관에는 무궁화사업 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육인, 관리로 살다 간 남궁억 장로의 일생이 잘 정리되어 있다. 남궁 장로는 최초의 근대교육 시설인 영어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종의 통역관으로 출세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 정세에 대해 남궁 장로만큼 밝은 이가 없었다. 출세하고자, 나라를 팔 고자 마 음먹었으면 못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궁 장로는 굳이 좁은 길로만 갔다. 남는 것 이라고는 고통뿐이었지만 나라를 위한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남궁 장로의 삶이자 신앙이었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한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했던 한서 남궁억 장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말이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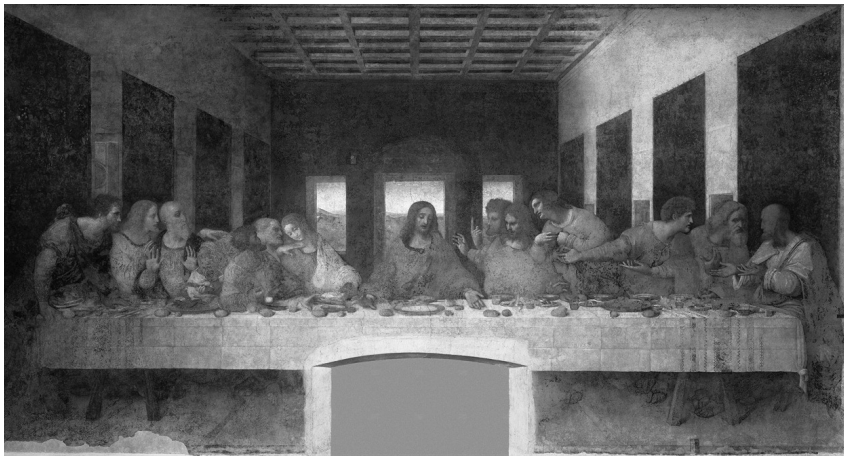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죠? ②

오늘은 주일(主日, the Lord's day)에 대해 알아보까요? 성경은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요 20:1)' 빈 무덤을 목격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부활 후 다시 만날 약속의 날을 정해두셨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날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첫날을 부활 이후 선택한 백성들과의 공식 만남의 날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된 그날, 그 영광스러운 주일 만남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의 첫 만남(요 20:19~22)을 통해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섬길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에 대한 예배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첫째, '주의 임재'예요.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주일 모임의 시작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요 20:19)라고 표현해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평강 기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20)라고 선언하셨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 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며 주일을 정했다.

락이나 세속적 행복이 아니예요.

셋째, '고난에 대한 각성'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요 20:20).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진수이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예요. 성도는 참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넷째, '성도의 화답'이에요. 십자가가 지닌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사를 통과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와 손을 보여 주시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요 20:20)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다섯째, 다시 한 번 '평강 기원'에 대한 선

포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21).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하시면서 세속의 평강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참 평강을 소유하라고 강조하세요. 그렇게 참 평강을 소유한 성도는 마음속에 소망이 차오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섯째, '파송'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 20:21)고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기쁨과 참 평강을 회복한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째, '축복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하시며 참된 평강을 얻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

신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는 성령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공동체가 종말의 날까지 드려야 할 주일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부활의 주일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을 앞으로도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주심으로 인간들을 감동시킬 것을 친히 선언하신 자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 후 첫 주일 모임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 더! 성령님이 이 땅에 정식으로 오신 오순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순절(五旬節)은 50일, 즉 유월절이 끝난 후 시작되는 초실절(初實節)로부터 안식일을 일곱 번 계수한(49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은 신약의 '안식 후 첫날'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의 일요일, 즉 주일을 말해요. 따라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역시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인 거지요. 예수 부활 공동체인 기독교 교회가 준수해 온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슴 벅찬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의 주일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죠?



박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불만한 공연

뮤지컬로 다시 만나는 '벤허'

10월 29일까지 충무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세계 최고의 기독교 콘텐츠 '벤허'를 뮤지컬로도 만나 볼 수 있다. 충무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이 한창이다.

벤허의 재미는 지난 19세기부터 입증됐다. 작가 '루 월러스'가 1880년 집필한 <벤허: 그

리스도의 이야기>를 발표한 뒤 5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1950년대에는 영화로도 개봉했다. 영화 벤허는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수상하고, TV드라마와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전 세계 최초로 뮤지컬로 탄생한 벤허는 소설과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뮤지컬 벤허는 첫 막이 오르기 전부터 화려한 캐스팅으로 이목을 끌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가는 명문 집안의 귀족이었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복수의 기회를 얻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아가는 유다 벤허 역 배우 유준상, 뮤지컬 '팬텀', '도리안 그레이'의 박은태, 벤허와 막역한 친구이자 예루살렘 주둔 사령관으로 벤허에게 벌을 내려 집안을 파멸시키는 메셀라 역 박민성, 민우혁, 최우, 벤허의 연인이자 노예 생활을 하며 떠도는 벤허를 기다렸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는 에스더 역 아이비와 안시하가 캐스

팅됐다. 연출과 지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왕용범과 이준 음악감독이 맡았다.

뮤지컬 벤허의 배경은 서기 26년 로마의 박해에 신음하는 예루살렘이다. 명망 높은 유대 귀족 유다 벤허는 로마의 장교가 되어 돌아온 친구 메셀라와 오랜만에 재회한다. 유다 벤허의 여동생 티르자가 집 옥상에서 행군을 구경하던 중 기왓장을 떨어뜨리며 그라투스 총독을 다치게 할 뻔하자 메셀라는 이를 문제 삼아 유다 벤허의 가문 전체에게 반역죄를 씌운다. 누명을 쓴 유다 벤허는 로마 군함의 노를 젓는 노예가 되지만 해적과의 전투 중에 사령관 퀸터스의 목숨을 구하면서 자유의 신분을 얻는다. 위기를 극복한 유다 벤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메셀라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이후 전차경기로 복수에 성공한 유다 벤허는 한 선병에 걸려 떠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가 재회한다. 이때 나사렛에서 예수에게 설교를 듣고 감화된 에스더는 유다 벤허에게 예수를 만

나볼 것을 권유한다. 유다 벤허가 가족들과 예수를 만나러 골고다에 간 날은 예수가 처형되던 날이었다. 유다 벤허가 노예일 때 예수가 물 한 잔 건네 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에게 물을 가져다준다. 그러면서 기적을 목격한다. 유다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의 한센병이 낫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뮤지컬 벤허는 원작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극의 백미로 뽑히는 '원형경기장에서 전차 경주',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해양전쟁'을 터테이블과 스크린을 이용해 신선하게 소화해냈다. 170분의 러닝타임 동안 큰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에 쇼케이스에서 발표한 뮤지컬 음원, 원작 책, 영화를 보면 더 풍성한 뮤지컬 벤허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충무로아트센터 02-2230-6600

우리 가족 신앙전수 비법 ‘어린이 일대일’

조부모와 부모가 양육자, 손·자녀들이 동반자

“이번 추석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꼭 전도할거예요.”

또랑또랑한 눈으로 다짐하는 김하윤(9세, 유년 2부) 어린이는 1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했다. 김하윤 어린이를 양육한 주인공은 아빠 김진수 성도(노원공동체)다. 올해 3월 처음 선 보인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자녀에게 담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비법이 되고 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부모, 엄마, 교사도 양육자가 될 수 있다. 1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에서는 총 5가정이 수료했다. 수료한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어른들이 꼭 들어가 할 프로그램”이라며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어린이 일대일을 통해 관계가 돈독해진 정태선 집사와 외손주 김주안.



▲ 솔직하게 나누는 엄마 이영미 성도와 딸 박수아.

정태선 집사(가정사역공동체)는 외손자 김주안(13세, 소년 1부) 어린이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줬다.

“주안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변하고,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와요. 요즘은 주안이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모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덕분이예요.”

정태선 집사는 외손자 칭찬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표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외할아버지와 외손자가 어쩔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정말 부러웠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할아버지 정태선 집사에게 간절하고 시급한 기도제목이 하나 있었다. 사춘기가 시작된 외손자와 관계회복이었다. 정 집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외손자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정 집사의 간절한 기도제목이 올해 응답됐다. 올해 3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되었다.

정 집사는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집에서 외손자와 함께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외손자 주안이가 처음부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에 열심히 참여한 것

은 아니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자고 하셨을 때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의 시작과 끝은 기도이다. 시작할 때는 외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마칠 때는 주안이가 기도한 다음 외할아버지가 기도를 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주안이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기도다. 주안이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변했다.

“전에는 원하는 것만 구했는데 지금은 찬양하고, 화개하고,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주안이는 기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서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부쩍 늘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다.

“일대일 하기 전에는 집에 오기 싫고, 집에 와도 말을 잘 안했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제가 변화된 것처럼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사이에 존재하던 벽도 허물어졌다. 이제는 주안이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긴다.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한다. 주안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생겼다.

“주 안에서 잘 성장하라는 뜻으로 지은 제 이름처럼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딸 수아가 변화된 사연

“엄마, 교회는 왜 가야 돼?”

이영미 성도(성동광진공동체)가 둘째 딸 수아(11살, 초등 1부)의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했다.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첫째 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이영미 성도는 딸에게 크리스천의 신앙관을 가르쳐 줘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때마침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이영미 성도와 수아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딸과 나눴던 적 없는 성령, 기도, 교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쑥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위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영미 성도와 딸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곱씹고 소통하고 있다. 모녀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모른다. 그녀들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이영미 성도의 솔직함이다. 이영미 성도는 딸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숨기지 않고 나눴다. 이것이 바로 이영미 성도가 딸과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더 깊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한번은 수아가 모호한 신앙 개념을 어려워하면서 질문하자 이영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는 너만 고민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 그때 엄마는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니까 확신이 생겼는데 수아는 어때니?”

엄마의 솔직함이 수아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쉽게 와 닿지 않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엄마의 말이 위안이 됐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해가 안가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수아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신앙관이 뚜렷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한번은 영어학원에서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해 나눴는데 그때 수아가 영어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선생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한 Tip〉

1.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
2. 대화할 때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끝낸다. (ex. 00이는 어떻게 생각해?)
3.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눈다.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서빙고
일시: 9월 24일, 10월 1일
문의: 02-3215-3220
양재
일시: 10월 15일, 22일
문의: 02-570-7349

감사편지

사랑하는 손자 주안이에게

외할아버지는 우리 주안이가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내 손자 같은 손자가 또 있을까”라는 말을 실감했다.

처음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때 네가 건성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단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행동과 기도가 변화되고, 분별과 결단함으로 인내하

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주안이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30세가 된 주안이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구나. 내 손자 주안아, 할아버지가 늘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려무나. 사랑해.

/ 정태선 집사(가정사역공동체)

“엄마 덕분에요”

엄마, 저 수아예요. 엄마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자고 했을 때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엄마와 둘이서만 성경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마음이 설렐어요. 엄마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엄마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엄마의 고민을 들으

면서 내가 잘 자라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궁금했던 기도와 교제 등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모두 엄마 덕분에예요. 엄마에게 배운 것을 저의 삶에 적용하며 살고 싶어요. 엄마도 매일매일 건강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엄마도 나도 꼭 천국 가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 박수아(초등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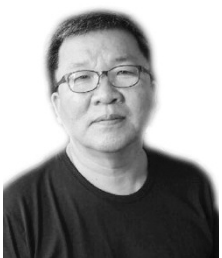
특별기고 - 일대일 제자양육의 의미와 유익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또 다른 교회 생산해야

오늘(17일)은 ‘일대일데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날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53,167명이 동반자 과정을, 27,894명이 양육자 과정을 수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유용한 선교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페루, 미국, 캐나다 등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일대일데이를 맞아 허복만 장로(일대일사역위원회 아카데미팀장)가 일대일 제자양육의 의미와 중요성, 활용방안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허복만 장로
(일대일사역위원회
아카데미팀장)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90년대 중반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7년’과 ‘떠나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사도행

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성도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뜻이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섬기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었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라는 말은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제자양육 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이후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떠남’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필수적인 양육체계로 강조해 온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만이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자는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가던 시기에 평신도를 목양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킴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4년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2천/1만 비전’이 선포되었다. 이때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고취되었다. 그때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이 일반사역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이나 직장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일반사



러시아 아웃리치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역자들이 현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이미 선교지에서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현지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 일대일 제자양육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하면서 대외사역으로도 활발해졌다.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침체 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목회자들만 목양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양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평신도들을 능동적으로 목양에 참여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어야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목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대일 제자양육이 필수적이다. 한 영혼을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이미 많은 양육자가 배출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등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 일대일 양육자와 동반자가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새신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과 국내 교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선교지 교회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

구가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강력한 선교도구 ‘일대일 제자양육’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과 단기선교팀들이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그쳐 연속성이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문제의 대안으로 아웃리치 기간 중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관리한다면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지인 양육자가 세워지고 재생산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강력한 선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었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대일로 양육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묵도하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적절한 선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주민들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 교회를 깨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온누리교회는 안산M센터를 주축으로 김포, 화성, 평택, 남양주에서 M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복음을 심고, 거듭나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들이 체류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혹은 선교훈련을 받고 파송된 선교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 다문화 지체들과 일대일로 만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보여준다면 효과적인 신앙훈련이 될 것이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적응문제,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충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민들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이주민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고 도움을 준다면 그 과정 속에서 쌓인 신뢰가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제자 훈련 방식은 거의 대부분 소그룹으로 모인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이론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끝나고 나면 잊히는 것이 문제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강력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강력한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회도 회복시킬 수도 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재생산이 역동성을 가지고 온 교회로 퍼져 나가면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민족과 열방을 깨우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귀중한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성도는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해야 한다. 교회는 생명이며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세미나에서 마이클 오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청 세미나

77개 단체 및 교회 160여 명 참석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청 세미나’가 지난 9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됐다. 서울신학대학교 로잔동아리, 조이선교회 등 77개 단체 및 교회에서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잔운동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이클 오 대표(국제로잔위원회)가 ‘글로벌 로잔운동의 역사와 전망’, 한정국 선교사(전 KWMA 사무총장)가 ‘로잔 운동과 한국 교회’를 주제로 강

의했다.

마이클 오 대표는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며 “6가지(겸손, 우정, 연구, 기도, 협력, 소망) 로잔운동 정신을 지니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신현승 장로(선교분과위원장)는 “온누리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고, 유기남 선교사(알타이선교회)는 “세계 선교

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시작됐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적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비전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국로잔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이재훈 담임목사,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취임



이재훈 담임목사가 기독교학술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3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이재훈 목사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학술원 고문,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바람직한 목회자’를 주제로 설교한 김명혁 목사는 “바람직한 목사는 회개, 온유, 겸손,

진밀한 소통, 화해, 평화, 가난, 고난, 슬픔을 몸에 지니고 사는 자”라며 “모두가 바람직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권면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성 깊은 차세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학술원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독교학술원은 1982년 개혁주의 영성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신학교수,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을 성경적 영성신학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동부요양센터 개관 12주년 감사예배

온누리복지재단산하 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이하 동부요양센터)가 지난 13일 개관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조호영 상임이사(온누리복지재단), 조항진 장로, 송영범 장로, 임소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남수 어르신 외 7명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과 동부요양센터 직원들이 선보인 ‘아리랑 합창’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67기 성령수련회 개최

9월 23일 Acts29비전빌리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수련회가 열린다. 67기 성령수련회가 9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성령수련회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님의 속성, 사역, 권능을 알고,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령님을 주제로 강의와 소모임이 진행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215-3521

9월 세례자

열린새신자예배 유아
서제단 940716 이시은 151001
오주희 780320 이관현 박미희
유영삼 720817 최나단 161023
윤혜원 910505 최고윤결 류경진
장 기 870305

발달장애인들이 선보이는 공연

23일 강동 사랑부 합창단, 10월 10일 사랑챔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강동 사랑부 합창단’과 ‘온누리 사랑챔버’가 공연을 한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은 ‘동쪽 하늘 무지개’를 주제로 제2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9월 23일 오후 4시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 오른다. 제2회 정기공연에서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꿈꾸지 않으면’, ‘에델바이스’ 등 총 8곡을 합창할 예정

이다.

온누리사랑챔버는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10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선상의 아리아’, ‘축배의 노래’, ‘아리랑 메들리’,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등을 연주한다.

문의: 강동 사랑부 02-475-9686

온누리사랑챔버 02-581-5404

‘부채탈출 119’ 프로그램 시행

10월 22일까지 참가자 모집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과중한 부채 때문에 눈앞이 막막한 성도들을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부채탈출 119’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부채탈출 119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들이 안정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

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22일까지 사회선교부 웹사이트 (<http://sjm.onnuri.org/loving-u-debt>)에서 ‘가계재정 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9월 24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5월 14일~8월 31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박영인	신동숙	김종국	권유진	이윤숙	홍주영	서브리지
김영립		양인영	김필녀	안성진	이은정	강준구	김강원
최수미	김포	이재성	안상숙	이남기	정세옥	일산	김경희
	김영삼	이한주	이윤지	전근순	최진영	김종국	김주영
강서	박현자	하규연		정성우	홍성철	문성균	김현미
강신연	이숙향		성동광진		황유정	임광수	김현미
김다솔	정준영		강 훈	양천		정태선	류지혜
이동걸	최명호	마포	김정렬	김휘기	이수	정하나	백선희
장화성		김현주	경국현	문정모	강동욱		서은혜
조윤희	노원	박서근	유재성		김해림	중종로	성백기
	김효성	신세나	이선옥	여의도	오명자	강병철	유철환
강촌	박은진	신재경	이성실	이민영	오윤미	고주식	이은미
김보라	신덕용	안영란	최미선	조 현	조원익	권용식	이창환
김형도	유소영	안혜성			조현정	김윤정	이현주
	이지연	오복환	성북	영동포구로	지대현	김준미	이혜진
고양은평		이소정	김민균	김성은	최제하	류부길	정미향
양희분	동대문중앙	이재형	노정호	박은경		윤수란	주성희
조윤숙	김장래	장근수	박재완	손재영	이춘	홍지윤	하승호
	박유진		이맹우	이성주	강명관	황서균	홍준서
관악금천	장 기	북누리	이은경	조금수	권현자		한강
김철민	조기삼	전경훈	이필준	최미영	김찬중	김지향	김지향
맹석숙	천소영		이한희		김태균	동일천	오승균
박민석		서대문	임영재	용산	김태원	박성근	이대원
정은하	동작	박승민	정해경	김소영	심정연	박성민	이은정
정지은	김나리	서제란	최수진	심정연	오선경	성경주	이철원
	김영관		최은영		유미란		
광명	김진석	서빙고			윤은철		
공수식	박지윤	김양현	신용산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9월 24일(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

대상자: 8월 6일~9월 9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강남A	김영숙	신현재	송파	박지인	김기훈
김영주	김태문	이재호	김병관	송미선	김상원
박은미	유연정	전은숙	홍익표	이화평	이슬기
안지석	이화중	조서영			전효정
윤화정	최정원	이 선	서초D	장남희	한 신
이형숙	하대원	조종환	김지영	조준호	김기령
임조윤		산본안산	박지윤	최병춘	송애영
최지예	강남C	김미란	안재준		조다미
	신은경	분당B	정재훈	안영평	
강남B	정영신	강상명	서초A	김태국	푸른누리
	권양자	권양자	강희수		

제1164호 | 2017년 9월 17일(주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채지혜 선교사(중동A국)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A국은 비상계엄령 연장 상태에서 헌법 개정 찬성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장기독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며 소망을 갖는다.

재봉사 I는 올해 처음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았다. I는 자신의 가게 옆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무슬림이라며 영접기도를 거절해왔다. 길에서 마주쳐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니 순응했다. 마치 부흥의 신호탄같이 느껴졌다. S는 재작년 축구장에서 만나 부부 모두 영접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서 관계가 멀어졌다. 올해 S가 나를 집에 초대해서 방문했더니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내 옆에 앉은 N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S의 동생인 P가 N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주위가 산만한 가운데 나직하게 N에게 복음을 전했다. N은 영접기도하며 방언을 받고 성경도 읽

부흥의 신호탄

겠다고 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모습에 새삼 전율을 느꼈다.

체조교실의 A는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남편이 두려워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 대신 내가 추천한 기독교 동영상을 보았다. 한번은 비가 와서 함께 집에 갔다. 항상 남편이 데리러 오는데 그날은 아들 O가 데리러 와서 O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O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 방송을 보겠다고 했다.

축구장에서 만난 M에게 복음을 전한 뒤 “이제 무엇을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냐”고 대답했다. M의 반응이 기뻐서 감사기도를 했다. 지난번에 영접기도를 하고 성경을 받았던 교사에게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다고 물었더니 자신이 읽은 후에 다른 사람을 읽고 있다고 했다. 마호메트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말할 용기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도해주려고 이름을 묻자 G라고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한다. 복음을 거절했던 I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S, N, P, SH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A와 O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M이 나에 대한 소문과 방언에서 벗어나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창조과학스쿨 수료 간증



/ 김지혜 성도(서빙고공동체)

창조는 역사적, 과학적 사실

창조과학스쿨을 수강하기 전에 나는 기독교 신자임에도 진화론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다. 창조론을 나 자신에게 세뇌시키면서 믿으려고 노력했다. 창조가 역사적, 과학적 사실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창조과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이며 생명은 결코 우연히 진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질서, 인간 세계, 동물 세계, 우주의 질서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소해 보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설계하신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 지구상에 남아있는 지층과 화석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진화가 아니라 순식간의 격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믿게 되었다. 인체의 정교한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약속과 설계를 알게 되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세세한 사항들도 역사적 사실임을 이 수업을 통해

확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4주 동안의 짧은 강의였지만 창조과학스쿨은 세상적 관점에 맞춰진 나의 시각을 교정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에서 창조질서와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인간과 세상, 우주 질서를 정교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이 나 역시도 설계하셨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과 힘써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진화론이라는 렌즈로 인해 창조론이 가려졌던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의 렌즈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 나의 시각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

■ 마포공동체 '다락방 1사역' 간증



/ 이익식 다락방장(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기쁨

나는 지난해부터 '다락방 1사역'을 섬기고 있다. 마포공동체 다락방은 산마루교회와 노숙인 학교에서 간식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베드로다락방만 상암동에 있는 '삼동소년촌'이라는 고아원을 섬기고 있다.

삼동소년촌은 1953년 서울의 모든 쓰레기 집합장소였던 난지도에 설립되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남자 아동 보호시설이다. 삼동소년촌은 황윤숙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던 곳이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에도 삼동소년촌이 들어왔다. 삼동소년촌 원장님을 찾아가 온누리교회 사역과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제일 이모(병별로 영유아를 돌보는 복지사)'들이 힘들어 하는 시간에 봉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씩 승리방(1개월부터 12개월 사이의 영아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승리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를 쳐다보는 10여 명의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들을 반기고 있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맑은 눈동자를 다시

보고 싶어서 매번 달려가게 된다.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만이라도 이모들이 쉴 수 있도록 영유아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다.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이유식이나 밥 먹여 주기, 책 읽어주기, 기저귀 갈아 주기 등을 하고 있다. 도서관 정리, 복도나 화장실 청소도 한다.

무엇보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극정성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듬뿍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두 집사님이 월요일마다 고정적으로 삼동소년촌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즐겁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봉사를 중단해야 될 때도 있었다.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수두병, 올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수족구병이 발병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동소년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귀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감사하다. 삼동소년촌을 섬기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

■ 45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정문, 정은영 부부

네 가지 은혜

나는 종종 교회 지인들로부터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해보라는 권면을 받았다. 지난 4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토요일에 쉬게 되었다. 남편을 설득해서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네 가지 은혜가 있다. 기쁨, 회개, 감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이다.

첫 번째 은혜는 기쁨이었다. 젊은부부학교 오프닝은 그야말로 기쁨과 생동감이 넘쳤다. 남편과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사과머리를 만드는 게임을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마치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가정원리' 강의에서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라는 결혼사명이 가슴깊이 와 닿았다. 이 결혼사명을 내 아들에게, 아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두 번째 은혜는 회개였다. ‘돌아온 탕자’ 강의에서 보통 내내는 늘 교회 안에 있지만 화가 난 큰아들이고, 남편은 세상 속에 빠져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은 둘째

아들과 같다고 하셨다. 나 역시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화가 난 큰아들 같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 큰아들 같은 저를 용서해주세요.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오려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기도를 했다.

세 번째 은혜는 감사였다. ‘자기에로의 여행시간’에서 나의 원가정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나누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전에 아빠에게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이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여졌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이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젊은부부학교를 섬겨주신 목사님, 강사님, 스테프, 자녀를 잘 돌봐주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천국 잔치날



허영남 장로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 담당)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2012년 4월 창립예배를 드렸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몇 년 동안 쌓인 어머니들의 기도가 강동 사랑부라는 열매를 맺게 했다.

2014년 여름, 강동 사랑부에서 사역하고 있던 김양희 권사와 임창한 지휘자가 사랑부 합창단 개설을 소망했다. 1년 후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과 강동지역 발달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토요합창스쿨이 탄생했다. 작년에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호원아트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창립 1년만에 생긴 일이다. 놀라운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오는 9월 23일에는 제2회 정기연주회가 강동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은 사랑부 지체들과 강동지역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하나같이 노래를 좋아한다. 언어표현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마음과 몸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래하는지 모른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권일 학생은 교회에서 경기를 자주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런데 강동 사랑부 합창단에 들어간 이후에는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이(초등부) 학생은 처음 강동 사랑부 합창단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연습시간에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연습에 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성도 좋아지고, 발성훈련을 통해 언어표현력도 향상되고 있다.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강동 사랑부 합

창단에서 배운 찬양을 부르기도 한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장애인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저 지휘자와 반주자의 자원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더욱 그랬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교회에서는 비전헌금을 후원해주셨다. 그렇게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사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연주회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회째 연주회를 열게 해주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어머니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성악가들과 강동 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도 함께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제1회 정기연주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잔치였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순별로 친교를 했고, 사랑부도 많이 격려해주셨다. 이러한 모습이 강동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강동 온누리교회의 천국 잔치날이 되는 것이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꿈을 꾸고 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학생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가정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사랑부 토요채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랑부 토요채플은 만지 않는 발달장애인과 가정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날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강동 사랑부 친구들을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오준현 전도사님과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사칼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강경숙 권사
(온누리전도학교)

서빙고 농어촌 사역팀과 함께 경상남도 산청 지역에서 3박4일을 지내면서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농어촌사역팀, CMN 라파팀, 여성선교합창단, 디렉션선교회, 전도학교까지 총 5팀이 힘을 합쳐 경상남도 산청의 4개 교회(초원, 모례, 평지, 청현)를 섬겼다.

농어촌사역팀은 각 팀마다 리더를 세워 사역을 총괄하고, 주방과 차량이동 등을 맡았다. 라파의료팀은 영양제를 나누고 진료로 주민들을 돌봤다. 여성선교합창단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빙 등 틈새 사역을 맡았다. 디렉션선교회는 각종 공연과 음악, 마술 등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도학교팀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축조전도를 했다.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농어촌 교회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시에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우리가 섬겼던 농어촌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다. 모례교회에는 새신자 2명이 왔고, 평지교회는 새신자가 6명이 와서 성도가 12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청현교회는 새신자 4명이 왔고, 베이스 캠프였던 초원교회는 새신자가 무려 39명이나 왔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원교회 새신자 39명 중에는 네팔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 중 한 쌍이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초원교회에서 결혼

식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음화율 3% 미만인 지리산 자락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사역을 마치며 서빙고 농어촌사역팀을 섬기는 심길섭 장로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시며 “가정에서 냉장고를 하나 사도 10년 A/S를 받는데 그간 섬겼던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힘을 잃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농어촌 교회에서는 새신자 하나 얻기도 힘들지만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은 더 힘들다. 교회와 집들이 떨어져 있어 오고 가는 길을 일일이 살펴줘야 한다. 성도 대부분이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가 너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잉여의 복을 손에 쥐라고 도시의 교회를 축복하고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일으켜 그들도 너희와 같이 충만케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섬긴 이번 사역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3박4일 동안 함께 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복이 넘쳐 나기를 기도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 25:13).

좋은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일정표를 점검하며 실시간 기도도 동역해 주신 온누리전도학교 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모집
일정: 9월 17일~11월 26일
문의: 02-3215-3214

복지칼럼



박준기 원장
(시립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

직원이 12년째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요양원은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집과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요양원의 일상 또한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인사를 나누고, 하루 세끼의 식사와 간식도 드시고 심심하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신다. 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들이 함

께하며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아 드린다는 점이다.

이런 요양원이 어떤 어르신들은 집보다 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이곳에서 하는 물리치료가 최고라고 하시고, 또 다른 어르신은 항상 간호사가 옆에 있어 든든하다고 하신다. 입소어르신의 68%는 치매질환을 32%는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다. 많은 인원 수 만큼이나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계신다. 걷기를 좋아해서 센터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치매어르신, 센터 밖 세상이 궁금해서 다른 보호자를 따라 조용히 나가시는 어르신,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이들에게 웃어주며 예쁘다 해주시는 어르신, 이 넓은 센터가 다 자기 집이라며 다른 어르신께 왜 우리 집에 있냐고 묻는 어르신... 이러한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들을 섬기며 믿음과 행복을 드리는 공동체가 동부요양센터이다. 많은 직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어르신들을

어르신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믿음을!

보살펴드리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다. 어르신들과 풍족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찾아오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들이다.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목욕봉사자, 매주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봉사자, 복음을 들고 방마다 방문하시는 심방봉사자,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봉사자도 있다.

이분들로 인해 입소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책 읽어주는 이웃사촌’이라는 전래동화 사운드 북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와상 어르신과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건강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봉사자의 연령도 다양하고 1:1로 진행되어 봉사일정 잡기도 수월하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족단위, 순 단위로 또는

개인적으로 와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이웃사촌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보다 믿는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찾아와 이곳 동부요양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천국소망으로 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소망한다.

개원 12주년을 즈음하여 지금까지 동부요양센터가 치매·중풍어르신들의 행복한 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누리복지재단의 지원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온 직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르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거룩한 나그네

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17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인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치우칠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밖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18-19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흠이 없이 온전히 순결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

라엘 백성들의 집에 뿌려졌을 때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화와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반됩니다. 자유의지의 핵심은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더러움이 보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를수록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성령의 법에 비칠 때는 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진리의 말씀

둘째,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23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사용하신 통로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22절).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욱 진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함의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하고,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 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속에서 거룩을 이뤄가야 합니다. 더욱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거룩해 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난민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중동R국 내전이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중동R국 난민들은 주변 국가와 유럽 등지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중동R국 주변 국가의 수용소 밖에 사는 난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당수의 난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2000선교 난민융합선교추진팀은 수용소 밖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난민선교를 기획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의 난민선교란 중동R국 난민들에게 디지털 이미지 배경지우기(일명 누끼)와 상세페이지 제작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난민들이 그 일감을 작업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일을 중동R국 난민 교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난민 교회가 이 일을 중동R국 난민들에게 전파하고, 난민이 난민을 전도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이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2000선교본부 난민융합선교추진팀은 현지에 가서 난민 선발자 10명에게 디지털 이미징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이나 일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

교육이 잘 이루어질지 염려했던 것과 달리 수업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고, 쉬는 시간에도 토의와 실습에 열중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놀랐다.

이쉬움도 있었다. 3일간 전일제 교육을 마쳤음에도 그들의 기술 수준이 일감을 주는 공급업체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교육일정을 7일 연장했다.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버스비가 없어 교육과 시험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생이 있었고, 노숙생활을 하던 몇몇 형제가 난민 교회 목회자 가정에 머무느라 그 집안 식구들이 지독한 비좁음을 견뎌야 했다. 또 주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감기에 걸려서 엄마들이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열나는 아이에게 약을 사 먹일 형편도 못되어 그저 안아주고 기도만 해주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시험에 통과했다. 모두 웬만한 물량은 소화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었다.

수료한 난민들에게 첫 번째 작업 물량이 공급된 것은 지난해 8월 말이었다.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미술품 판매용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한 난민 형제가 작업을 했다. 작업지시 내용이 까다로웠음에도 두 번의 수정지시를 받고 9월 초에 최종 납품에 성공했다.

난민들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업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선교적 기업인 ‘Truehanz’가 난민들에게 작업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Truehanz’는 선교지에서 개종자들이 직업이 없어 다시 옛날 종교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기업이다. 디지털 일감을 주는 발주고객의 만족과 난민들의 작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다. 디지털 이미지 작업과 관련 있는 성도들이 이 작업을 통하여 난민들에게 작업 물량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과 배경 지우기 일감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의류, 신발, 잡화, 보석 등의 업체와 사진스튜디오, 디

자인 에이전시, 인쇄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나온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난민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아름다운 협력이 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난민들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다. 난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난민들의 디지털작업 품질을 자문하고 돕기 위해 더 많은 재능기부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디지털작업에 참여하는 난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와 우리와 소통하게 되는데 그때 아랍어를 통역해줄 사람도 필요하다.

새로운 모델의 난민선교 주역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함께 물량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추진할 때 그만큼 난민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돌아가리라 믿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문의: 070-4285-3220, help@wide4u.org

/ 전요나 팀장(2000선교 난민융합선교추진팀)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나’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의 이름으로 약정하는 CGNTV 정기후원
섬김의 은혜는 더해지고, 복음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날마다 선교지와 함께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인이 한명도 없는 곳에서 지내지만 CGNTV를 볼 때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렵지만
방송을 들으며 받은 은혜로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 인도에서 얻은 지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박은경(가명)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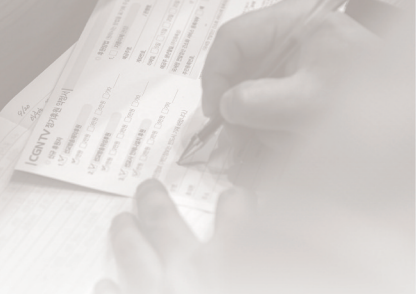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을 보고 부끄러웠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성공이 아닌 섬김’의 마음으로 다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26년째 B국 산악지역에서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그레이스 선교사



CGNTV 후원 약정서 작성방법



현재 후원 중이신 분

약정서를 펼치셔서 [신규후원]의
[가족이름으로 후원]을 신청해주시거나,
아래쪽의 증액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후원	
☐ 함께 (가족 후원자만 가능) 기존 후원금 +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성명	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년	월

처음 후원하시는 분

약정서를 펼치셔서 [신규후원]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동의와 서명란은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2) 세부정보를 잘 모르실 경우 성함과
연락처, 금액만 정확히 남겨주시면
CGNTV에서 전화드립니다.

신규후원	
☐ 본인 (본인 이름으로 후원) ☐ 가족 (가족 이름으로 후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성명	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본인명 또는 가족명	
년	월

※ 빨간색 필수 항목은 꼭 기재해주세요.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